



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Met 미술관 관람행사

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(관장 로버트 털리, koreanartsociety.org)는 17일(일) 오전 11시경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(약칭 메트 미술관) 방문 및 한국미술전시품 관람행사를 가졌다. 이날 행사에는 최근 링컨센터에서 암을 극복한 후 감동적인 연주회를 가졌던 피아니스트 서혜경씨, 그리고 올해 베니스 베엔날레오프닝 행시에 초대받은 비디오작가 이혜림씨를 포함, 총 20여명의 예술인 및 미술애호가들이 참여했다. 이날 행사는 메트미술관 큐레이터 이소영씨의 조선시대 미술과 양반사회 문화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됐다. 약 45분간의 강연이 끝난 후, 참가자들은 '조선남녀상열지사' 영화를 함께 관람한 후, 현재 메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시대 문화부흥기 작품특별전을 함께 둘러보았다.